

역사학과 사회학의 만남

「現代의 歷史理論」과 실제

1. 현대의 역사이론

현대학문의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인접 과학과의 연계 속에서 제과학의 보편적인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최근 「역사와 사회과학」의 개정판으로 나온 「현대의 역사이론」(김길사)은 이같은 현대사학의 방법론을 잘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12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아날르학파, 독일의 構造史 또는 사회사, 현대에 등장하고 있는 新史學, 역사 사회과학 및 地方史 연구 등이 주된 내용이다.

현대의 역사이론은 지난날 역사주의자들에 의해 주창된 개체성의 원리에서 탈피하여 사회화적인 만남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합사 또는 전체사로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전환은 사건사 또는 정치사의 비중으로부터 사회사 또는 구조사로의 전환을 뜻한다. 특히 아날르 학파에서 시도한 영역설정의 불필요성은 역사이론의 자료 및 사료 확대에 크나큰 공헌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전통사학에서 무시하던 계량적인 방법, 문학작품의 자료화, 시간 지속에 대한 개념 도입 등은 획기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은 사회과학적 역사인식이라는 새로운 역사학의 과제에 대응하여 개정된 것이다. 이인호 교수의 「소련의 정치와 역사학과의 관계」, 오주환 교수의 「지방사 연구: 그 이론

과 실제」를 보완함으로써 마르크스 역사학 및 향토사보다 체계적인 역사학의 방법론을 제시해 주었다.

2. 전체사와 시간의 지속

아날르학파는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보고, 이를 시간계열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전체사는 종래의 전통적인 역사학의 特殊史로의 세분화를 인정하지 않고 시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시간계열 속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브로델은 「역사의 종합」과 「역사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전체사로서의 지향점으로서 영역설정의 불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의 연구방법이나 역사인식의 태도는 사료의 확대라는 면에서 큰 공헌을 했는데, 특히 마르크 블로흐와 같이 농촌사를 연구하는 학자는 문서나 기록에만 의지할 수 없는 특징을 지적하고 「시간 계열 내에서의 변화의 속도」에 유의하고 있다.

구조사의 전통은 독일사학에서도 나타난다. 그러나 독일사학의 경우,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아날르학파처럼 발전하지 못하고 새로운 형태로서의 구조사가 등장한다. 이들의 방법론으로 제창된 것은 「국가로부터 해방된 사회로부터의 경험으로 중시하는 역사」였다. 이들은 한결같이 개체성의 원리보다 사회학적인 방법으로서 포괄적인 국가학의 전통으로부터 해방된 사회학의 개념을 성립시켰다.

독일 구조사는 歷史事象의 엄밀한 법적 확립을 목표로 한 람프레히트, 역사적 과정 분석에 이념을 도입한 베버, 현재의 업적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건과 구조가 서로 보완관계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3. 新史學에 대한 이해

제3부에서 길현모교수와 박성수 교수가 다룬 신사학 문제는 현대 역사 이론의 흐름에 대한 자세한 안내이다. 길현모 교수는 오늘날 역사학의 방향으로 전통사학에 대한 비판, 신사학의 현황평가, 과학성의 한계, 전문화 경향과 대중성 상실, 과학교류와 지식접취의 문제점이란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박성수 교수는 영미의 신사학, 프랑스 아날르학파 등을 소개하고 계량사, 심리사, 신사회사, 지성사, 신정치사, 여성사 등의 분과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신사학이 갖는 특징은 로빈슨의 이야기처럼 “오늘날 여러 문제 해결을 위해 정치, 외교, 군사사에서 사상사까지 포괄하는 넓은 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또 인접과학인 인류학, 사회학, 경제학, 심리학, 등사회과학의 방법과 개념을 도입”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사학은 전체성의 입장에서 서술되어야 하고 진화발생론적인 측면에서 설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사회과학의 검증문제, 신실증주의가 빠져든 전문화의 위험, 아직도 산적해 있는 신사학으로부터 파생된

여러 문제 등이 신사학의 어려움으로 남아 있기는 하지만 새로운 입장에서 전개되는 신사학 운동에 대한 소개는 큰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4. 지방사 이론

새로 보완된 논문인 오주환 교수의 「지방사 연구: 그 이론과 실제」는 향토사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 우리의 역사학에 큰 의미를 던져 준다. 지방사란 「지방 공동체의 역사(history of local community)」로 정의된다. 이때 지방사란 지역공동체의 전체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곧 지방공동체의 성립, 발전, 해체라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고찰하는 것인데, 향토사라는 정의적인 방법론에서 좀더 객관화된 학문적 방법론으로의 발전을 뜻한다.

지방 공동체의 특징은 자립적, 자기충족적이며 토착적 결집력이 강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공동체의 연대의식은 국가사와는 다른 의미에서 고찰되는 것이 정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식민지하로서의 지방 공동체」와 같은 경우 단순한 국가사와 다른 입장에서 살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통사회에서의 공동체 변모과정을 살피는 데 있어 사건사나 국가사가 아닌 지방사의 도움이 매우 클 것이다.

허재영

충북 충원고등학교 교사

한계상황 속의 인간 의지

빅토르 에밀 프랑크 「밤과 안개」

대체로 인간의 내면은 선과 악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분명히 악의 요소보다는 선의 요소가 더 많이 잠재해 있으리라. 선해져야 할 의무를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악을 배척할 줄 알며, 선을 즐기려 하고 희망한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다운 삶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 시대의 그릇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많은 인간의 의미를 부수어 놓았는가.

「밤과 안개」(서석연 옮김/ 범우사). 2차대전 당시 수용소의 생활을 몸소 체험했던 한 정신의학자의 체험기로서, 한계상황에 놓인 인간의 내면을 주로 묘사해놓고 있다.

정신의학자로 장래가 촉망되던 저자 빅토

르 에밀 프랑크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고, 죽음의 수용소라 불리는 아우슈비츠로 수송되어 처참한 수인의 신분으로 전락된다. 한정된 공간에서 가해지는 압박, 추위, 기아, 공포는 수시로 생명에 위협을 가져오고 오래지 않아 인간의 내면을 여지없이 무너뜨린다. 원시적 충동 이외의 모든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무감동의 심리가 되어, 노동감동의 꺾박으로 죽어가는 동료의 누더기와 신발에 눈독을 들이고,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 인육을 먹기까지 한다.

여기에서 저자는 원시적 충동 이외의 모든 내면을 파괴당한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에

비해 열악한 환경을 오래 견디낼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대체로 높은 정신력의 소유자들은 극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의 고통에도 현실세계를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는, 의미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지니고 있어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었다. 저자도 고된 노동생활의 연속 속에서 자신의 학문을 놓치지 않고 체험으로 얻은 정신분석에 대한 메모를 잊지 않았으며, 실체없는 상상 속의 그리운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큰 기쁨을 누렸던 것이다.

결국 종전과 함께 살아남은 수인들에게 절실했던 자유가 주어지지만, 인간의 의미를 말살당한 그들의 뒤틀린 내면을 메워줄 수 있는 것은 찾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의미없는 원시적 충동성으로 살아남은 인간의 파괴된 내면이 참다운 기쁨을 느낄 수 없게 만들어놓은 결과였다.

저자는 지난 악몽의 수용소생활을 악몽으로만 여기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

던 기회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그는 수용소생활에서 얻었던 새로운 정신분석을 바탕으로 인간의 의미에 대한 지향과 의지를 중요시한다는 로고테라피를 제창하여 세계적인 정신의학자로 자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책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인간정신력의 승리와 위대함이다. 신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저마다의 살 가치와 다른 생물은 없는 정신력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모든 가치는 생명과 함께 선을 추구하는 정신으로 결정지어지는 것이다. 인간 세상에는 언제나 선과 악이 공존해 왔지만, 결코 악이 언제까지나 승자일 수는 없었다. 신은 악이 있는 곳에는 그 보다 더 큰 선으로 대응할 줄 아는 선량한 정신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金瑛子

전남 보성군 보성읍 인사동 788.